

## 제9강 바벨론 포로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서는 남 유다의 계속되는 범죄에도 오래 참으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득차서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내리셨다.

**렘 16:10-13**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11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2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퍽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13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하셨으나,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 1 바벨론으로 추방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 1) 하나님의 심판과 추방

하나님의 구원은 분리와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분리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제사장의 사명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는 것이다.

**겔 44:23**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어 추방되는 것이 심판의 절정이다.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레 18:24-25**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25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대하 7:19-20**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20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 2) 바벨론 포로의 원인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 ①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실존을 불신하고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렘 32:33-34**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찌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4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렘 5:12-13**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② 안식일, 안식년 불이행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기준인 안식일을 범한 것이 포로의 직 접적 원인이 되었다.

또한 안식년에 땅과 종을 쉬게 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자유를 빼앗기게 하셨다.

**렘 17:27**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찌니라

**렘 34:17**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염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대하 36:21**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3) 바벨론 추방과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 특히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인데, 그 백성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성전과 성벽이 훼파되었다.

<b>제1차 포로</b>	주전 605년 여호야김왕 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 귀족(단 1:1-3)
<b>제2차 포로</b>	주전 597년 여호야긴왕 때	에스겔, 왕족, 방백, 용사, 기술자, 백성 (왕하 24:12-16, 대하 36:10)
<b>제3차 포로</b>	주전 586년 시드기야왕 때	왕과 지도자들 및 빈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 (왕하 25:6-7, 11-12, 렘 39:4-7, 9-10, 52:8-11)

왕하 25:7-12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8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십 구년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시위대 장관을 좇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11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12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 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4)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유다 백성을 쫓아내셨지만,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 기한이 70년으로 정해져있으며, 분명히 귀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

**렘 29:5-6**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0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소란하지 않게 하라

**렘 29:10-13**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2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겔 11:16**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간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렘 51:50**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위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시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신앙생활을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전환시키셨다.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 교육에 집중하게 된 것은 신앙 전수를 위한 구속 섭리였다.

## 2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 1) 새 언약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렘 1:9)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면서도 **소망**의 메시지, 곧 **새 언약**을 선포했다.

**렘 31:31-3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의 중심에는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나타난다.

<p><b>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신다(33절)</b></p>	<p>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인격과 속사람까지도 변화된다.  <b>고후 3:3</b>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b>그리스도</b>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b>돌비에</b> 쓴 것이 아니요 오직 <b>육의 심비</b>에 한 것이라</p>
<p><b>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34절)</b></p>	<p>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b>여호와</b>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b>충만</b>하게 된다.  <b>요 14:26</b>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b>성령</b>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b>사 11:9</b>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b>여호와</b>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b>충만</b>할 것임이니라  <b>고전 13:12</b>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b>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b></p>
<p><b>완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34절)</b></p>	<p><b>예수님</b>의 십자가 <b>보혈</b>로 <b>완전한 죄 사함</b>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b>마 26:28</b>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b>요일 3:9</b>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b>하나님</b>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b>났음</b>이라</p>

옛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의 불완전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갱신해주시고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주신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다.

**눅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히 8:7-12**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불찌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10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12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임재의 회복을 가져온다.

**겔 37:26-28**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 2) 새 성전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민족의 해방과 회복을 바라보며 기술한 말씀으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고 임재로 끝난다.

에스겔은 포로된 지 25년, 남 유다 멸망 후 14년에 새 성전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

**겔 1:1-3** 제 삼십년 사월 오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여호야긴왕의 사로잡힌지 오년 그 달 오일이라 3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겔 40:1** 우리가 사로잡힌지 이십 오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십 사년 정월 십일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 ①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우상숭배와 가증하고 악한 일에 대한 심판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겔 8:6-7**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7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겔 8:11**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이 오르더라

**겔 8:16**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이십 오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겔 9:9**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잦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떠나 동편 산으로 떠나갔다. 죄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만든다.

**겔 10:19**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겔 11:23**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시 51: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 ② 새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

**겔 40-48**장에 새 성전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단지 건축물의 외형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의 정확한 수치와 위치와 용도까지 자세히 척량하게 하시고,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광경까지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약속이다.

**겔 40: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찌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찌어다 하더라

겔 43:10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성전을 모두 척량한 후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요 1:14).

겔 43:4-5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5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 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 ③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는 ‘여호와 삼마’(יְהוָה שָׁמָּ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의 선포로 마쳐진다.

겔 48:35 그 사면의 도합이 일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아래 기지 중간에 있는 속된 땅인 성읍에 붙여졌다.

겔 48:15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광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찌니

**속된 땅 ‘홀’(ח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보통의) 것을 의미(삼상 21:4-5)**

일상적인 삶, 생활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땅이 되길 원하신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새 성전의 이상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함께 사는 삶이 그 나라까지 이어져 영원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마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계 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 3) 메시아

제1차 포로로 끌려가 1차 귀환 후까지 활동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도 계시를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셨다.

단 3:25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단 6: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단 4:8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좇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다니엘은 앞으로 세계사 속에 진행될 구속사와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 ① 인자 같은 이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 큰 짐승 넷(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의 이상 즉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과 그 후 나타날 바사, 헬라, 로마에 대한 계시를 통해 바벨론이 반드시 망하고 유다 백성이 귀환한다는 소망의 계시를 받았다(단 7장).

이때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이신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단 7: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같은 이’임을 뜻하신 것이다.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며, 특히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재림을 말씀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다.

요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눅 18:31-33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뱀음을 받게으며 33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16: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눅 21:27-28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② 70이레의 계시

다니엘은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기도했다(단 9장). 이때 70이레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

단 9:1-3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년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내가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7이레와 62이레	단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찌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이레 후 중간 공백기	단 9: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마지막 한 이레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0이레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내실 특별한 섭리의 기간이다.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의 중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에 죽으심, 마지막 일어날 대환난과 세상 종말을 예언한 말씀이다. 시대마다 구속사의 이정표를 제시함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예비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

마 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 24: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30-31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천국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겠다.